

그린이 가장 아끼던 핑크버블 티셔츠가 이제는 작아지고, 헤어버렸어요.

하지만, 조금의 애정과 효성티앤씨의 기술이 더해지면
낡은 옷들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특별한 마법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버려진 옷이 다시 쓰이는 '순환'과 '재활용',
이제는 우리의 생활도 함께 달라져야 해요.

그린과 핑크버블의 특별한 마법

HYOSUNG TNC X OHMY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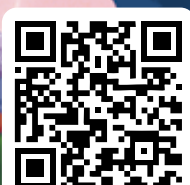
그린과 핑크버블의 특별한 마법

글·그림 오마이어스



가격 19,000원

HYOSUNG TNC X OHMYEARTH



QR코드를 찍으시면 AR동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



그린

핑크버블 티셔츠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이.
매일 입고 놀고 웃으며 핑크버블과 추억을 쌓아왔어요.
해지고 작아져도 버릴 수 없었던 소중한 친구, 핑크버블.
그린은 핑크버블과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합니다!



핑크버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핑크버블 티셔츠.
시간이 지나 티셔츠는 낡고 해졌어요.
헌 옷 수거함에 버려진 핑크버블 티셔츠는
효성티앤씨의 특별한 재활용 기술을 만나
새로운 모습으로 마법처럼 다시 태어났답니다!

글·그림 오마이어스

오마이어스(Oh my earth)는 기후·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효성티앤씨(주)

효성티앤씨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섬유 소재를 만드는 글로벌 섬유 기업입니다.

그린과 핑크버블의 특별한 마법

글·그림 오마이어스

퍼넌곳 오마이어스 출판등록 제2023-000112

주소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2-1 삼우빌딩 2층 tel. 02) 2268-0422

ISBN 979-11-994522-1-3

Copyright © 2025, Oh My Earth Co.,Ltd.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오마이어스에게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 복사, 수정,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그린과 핑크버블의 특별한 마법

글·그림 오마이어스



그린은 핑크색 티셔츠를 누구보다 아꼈어요.

“내 소중한 핑크버블~”

매일 입고, 같이 놀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티셔츠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소매는 점점 짧아지고, 배꼽이 보일락 말락 했지요.
“어...? 언제 이렇게 작아졌지?”



어느날 아침, 핑크버블 티셔츠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내 핑크버블 어디 갔어요?”

“아이고... 너무 작아져서 버렸는데...오늘 새 옷 사러 가자!”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인데...”

그린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맺혔어요.



야옹-!





부르릉~

그때, 창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 덜커덕!”

창밖에는 버려진 옷을 수거하는 청소부들이 보였어요.

그린은 헐레벌떡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트럭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린은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트럭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커다란 옷더미 산!
“우와... 이게 다 버려진 옷이라고?”
그린은 핑크버블을 찾기 위해 옷 산을 헤맸어요.





리젠 되돌림

그때, “덜컹- 덜컹-” 하며 이동하는 효성 연구소 트럭이 보였어요.

트럭 옆엔 ‘리젠 되돌림’ 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순간, 트럭 뒤에서 익숙한 분홍빛이 반짝였어요!

“핑크버블!” 그린이가 외쳤어요. “끼--익”





트럭을 멈춘 효성 연구요원은 그린에게 말했어요.

“안녕? 난 지구 지킴이 요원이야. 무슨 일이니?”

“뒤에 있는 핑크버블은 제가 아끼는 티셔츠예요! 버려지는 건가요?”

“아니야, 이 옷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T2T’기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그린은 지구 지킴이 요원과 함께 트럭에 오르며 말했어요.

“그럼, 핑크버블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지구 지킴이 요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더 멋지게 다시 만들어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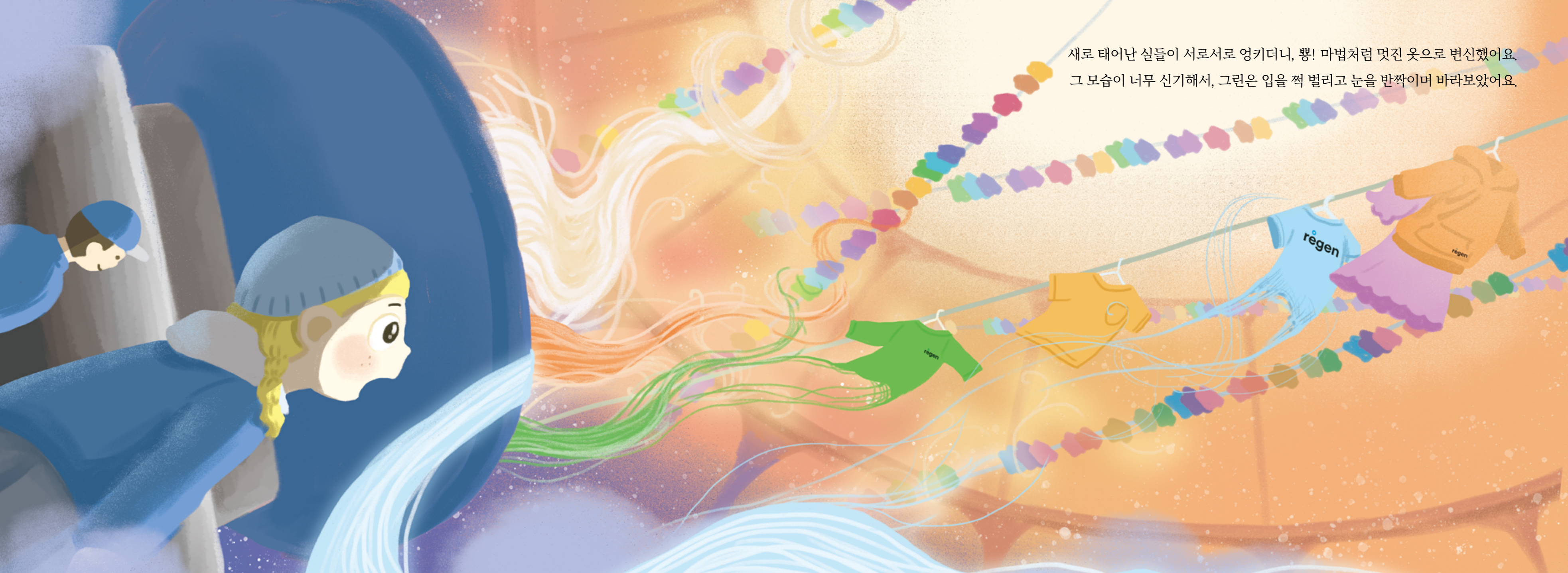


공장 안에선 버려진 옷들이 T2T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실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우와, 실들이 꼭 솜사탕 구름처럼 몽실몽실 춤추는 것 같아요~”



새로 태어난 실들이 서로서로 엉키더니, 뿡! 마법처럼 멋진 옷으로 변신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그린은 입을 꾹 벌리고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어요.



버려졌던 핑크버블 티셔츠는 조금 더 길어진 소매, 귀여운 주머니,
그리고 더 멋진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건 그린만을 위한 특별한 후드티야!”

지구 지킴이 요원이 웃으며 핑크버블 후드티를 건넸어요.

그린은 후드티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딱 맞아요! 너무 예뻐요!”



집에 돌아온 그린은 핑크버블 후드티를 자랑하며 말했어요.

“짜잔~내 핑크버블, 다시 새롭게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는 그린의 멋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다음날, 그린은 후드티를 입고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말했죠.

“우와! 그린! 그 옷 너무 멋지다!”

그린은 말했어요.

“이건 세상에 하나뿐인, 다시 태어난 후드티야!”

지금도 누군가의 버려진 옷들은
또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한 새 옷이 되어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지구를 위한 또 다른 시작! T2T 기술!”



T2T(Textile to Textile)

효성티앤씨의 T2T(Textile to Textile) 리사이클링 기술은 버려진 의류나 원단을 재활용하여 다시 새로운 섬유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